

제주특별자치도 수중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류재청 · 윤상택* 제주대학교

**Scheme of revitalization on adventuring tourism of undersea in Jeju-Do
(Centering on the infra-development and experter training of ocean leisure sport industry)**

Ryew, Che-Cheong · Yoon, Sang-Taek*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cean leisure sport industry can be summarized of personal service & infra development related with ocean leisure sports like sport lead, event planning, facility & management, provision of information to sport media. ore

Therefore we should investigate an institutional cultivating program about experter & leader's arrangement of ocean leisure sports with Jeju-Do brand for train, program development, management of facility and purification.

Through various development of infra facility & course to satisfy underwater tourism, Opportunity for Job obtain of leaders related with ocean leisure sport will be activated and resolved youth's jobless

Key words: ocean leisure sport, underwater tourism

* yoonst123@hanmail.net

I. 서론

정부는 '문화강국(C-KOREA) 2010'을 발표하면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의 3대 목표를 정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부는 2010년까지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성장률을 해마다 11.5%씩 증가시켜서 225조원 규모로 키우고, 총 고용 인력도 383만명으로 확대하여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문화관광부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10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16.1%가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것으로 보인다(양명환 등;2002).

2004년 현재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경제규모는 총 매출 117조원, 고용인원은 261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5년 동안 전체산업이 평균 5.7% 성장할 때 문화산업은 21%, 관광산업은 11%, 레저스포츠산업은 15% 각각 성장했다. 특히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다른 분야의 생산을 크게 유발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윤이중 등;1999).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산업의 성장, 고용창출, 관광자원 개발 등 경제적 가치 외에도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이라는 무형의 이익까지 파생시킴과 동시에 시장에 의한 스포츠 진흥의 저변확대라는 이익까지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외국자본의 국내 스포츠시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현장 유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스포츠행정조직을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 문화관광국 스포츠산업과→ 관광스포츠국으로 격상시키면서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스포츠마

케팅 사업 추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업단은 각종 대형 스포츠대회와 이벤트를 개발·유치하고, 전문인력 양성, 제주형 스포츠상품 개발 등 스포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제주발전연구원, 2003)되고는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이나 스포츠관광 상품 개발에는 미진한 실정이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미래가치)

국민소득의 증대와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레저의 고급화 및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유적 탐방과 같은 정적인 형태의 관광(수동적이고 시각적인 관광)보다는 위락 시설 이용이나 골프, 패러글라이딩, 해양레저스포츠 등과 같은 다양한 레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동적인 관광 형태(능동적이고 참여지향적인 5감 + 肉感)로의 수요가 증대되어왔고, 변모되고 있다.

최근 스포츠와 관광을 동시에 즐기는 스포츠관광(sport tourism)의 참여형 관광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관광활동의 한 축이 되면서 각 국가들은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을 이용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찍이 서구 유럽에서는 각종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개발 전략에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일례로 프랑스는 19세기 초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윈드서핑, 수영과 같은 활동성 관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지역에 따라 요트, 뱃목, 보트타기, 수상 스키와 같은 해양레저스포츠가 관광이벤트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스포츠 상품을 이용해 유발되는 가장 큰 이점은 겨울철과 같은 관광비수기를 타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서귀포시에서는 겨울

바다펜션수영대회, 겨울철 마라톤·인라인축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관광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관광자원은 스포츠자원과 상호간 연계하여 맥락을 같이한다. 즉 바다하늘-육지-독특한 지형적 특성은 관광자원인 동시에 스포츠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약 12,800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서 3,200여 개의 섬과 수심 20m 내외의 해역이 국토의 1/3에 해당하여 해양레저스포츠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 356개, 지정어항 415개, 소규모어항 2000여 개로 해양레저스포츠를 위한 사회적, 산업적 자원까지 구비하고 있어, 해양레저스포츠를 위한 천혜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인구는 2000년 1,574천 명에서 2010년 6,368천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03).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5,000-20,000불에 이르러 스포츠선호도가 자연친화형 스포츠로 전환될 때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레저스포츠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을 권역별로 해양모험관광, 해양친수문화공원, 해양과학관, 해상낚시공원, 해양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산-오름-하늘-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 자체만으로는 관광 어트랙션(attraction)으로서의 상대적 가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제주도의 수동적 관광산업은 상품 생명주기의 관점에서 정체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안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상품 생명의 지속력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양명환 등, 2002).

특히, 4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실제로 겨울철에도 윈드서핑 동호인들과 스쿠버다이빙 매니아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라 대안 관광으로써 매우 적합하다. 이와 같이, 해양레저스포츠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행해지는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에만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윈드서핑, 요트, 스쿠버다이빙 및 스포츠낚시와 같은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이벤트 유치·개최 또는 참여형 관광 상품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은 해양에서 행해지는 자연친화적 해양레저스포츠 자원을 바탕으로 스포츠지도, 이벤트 기획, 시설 및 관리, 스포츠미디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인적 서비스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스포츠관광의 문제는 대부분 종사하는 인재의 자질에 의해서 그 성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인재라는 문제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지도, 교육프로그램 및 여행상품 개발, 시설의 관리·운영 및 해양환경의 정비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력과 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주도의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실태와 파급 효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인력 수요 측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3)에 의하면,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연대하여 개발하고 도내 인력을 선발하여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 강화와 필요시에는 선발된 전문 인력의 해외연수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또한, 성산권과 중문권에 대단위 복합 해양레저타운 및 스포츠시설 건설 예정에 있으며 레저 및 스포츠산업 분야는 7대 선도프로젝트에 중문관광단지 확충, 휴양형 주거단지개발, 서귀포 관광 미항 개발영

역에 포함되어 있어 전문인력의 수요는 매우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과 맞물려 스포츠산업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양성 측면에서는 대학이 주체가 되어 관·학이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면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제주대학교에서는 학부생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표 1>의 스킨스쿠버 자격취득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부터 체육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강사 및 보조 강사들을 육성하여 2007년을 기준으로 47명의 강사를 배출하였으며,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832명이 오픈워터 이상의 수요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의 윈드서핑 자격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체

육학과에서는 대한윈드서핑협회(사단법인) 지도자 자격증과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4명을 배출하였다.

제주도에는 성산해양관광고등학교와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등 관광특성화 고교가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고교-대학-대학원 연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제주대학교는 체육학과에서 체육학부(체육과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로 모집단위치를 위해 지역학교 교사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3) 대학의 특성화 관련

제주대학교 체육학부는 문화관광부와 제주도의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04년에 레저스포츠전공을 신설하였고 스포츠산업론,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

표 1. 스쿠버다이빙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47	3	5	5	5	7	6	3	4	4	5
강사진	강사	14	2	2	1	1	2	1	1	2	1	1
	보조강사	33	1	3	4	4	5	5	2	2	3	4
계		1,832	132	76	155	174	203	200	152	244	259	237
수강자	어드밴스	169	25	4	13	7	21	20	21	16	21	21
	오픈워터	1,663	107	72	142	167	182	180	131	228	238	216

자료) 2008년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자체분석 자료, 주) 2007년 12월 현재.

표 2. 윈드서핑 자격취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64	8	7	6	21	3	4	2	4	9
3급 생활체육지도자	9	-	1	1	7	-	-	-	-	-
협회 3급 지도자	55	8	6	5	14	3	4	2	4	9

자료) 2008년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자체분석 자료, 주) 2007년 12월 현재.

업 및 스포츠관광 등의 이론과목과 지상스포츠(골프, 사이클 등), 해양레저스포츠(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산악스포츠(오름트래킹, 등산, 스키) 및 항공스포츠(패러글라이딩)의 실기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학부는 골프와 해양레저스포츠(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 등)의 시설과 장비가 구비되어 연구와 실습에 대한 여건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국립대학간 학점교류를 맺고 있는 타 대학에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 계절 학기 수업 시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스쿠버다이빙 과목과 윈드서핑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또한,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현재는 부득이 통제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으며, 아울러 타 지역 대학에서 교육환경 미비로 위탁교육 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과 <표 4>를 보면 제주대학교 체육학과에서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

양레저스포츠(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체험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대학과 학부 홍보는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레저스포츠를 체험하면서 제주도내 청소년들로부터 신선하고 이색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원직무연수 또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소방서 교육, 지체장애인 스킨스쿠버 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는 물론 도민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레저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제주형 맞춤 프로그램 개발과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이론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학계인사, 전문가, 현장 실무자들을 초빙해 스포츠 산업과 관광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대학교 체육학부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지정 등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국제적 마인드와 전문성 강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표 3. 스킨스쿠버 교육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817	57	49	131	82	79	88	82	88	88	73
고교생을 위한 스킨스쿠버 체험교실	251	-	20	40	15	23	30	25	30	34	34
대학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48	3	5	5	5	4	3	4	6	4	9
제주소방서 스킨스쿠버교육	152	-	-	19	23	20	25	23	22	20	-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킨스쿠버 과정	93	30	13	20	16	14	-	-	-	-	-
제주대학교 교직원 자녀 및 일반인 대상 무료강습회	71	24	11	26	10	-	-	-	-	-	-
지체장애인체험교실	21	-	-	21	-	-	-	-	-	-	-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자 훈련과정 교원 직무연수	181	-	-	-	13	18	30	30	30	30	30

자료) 2008년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자체분석 자료, 주) 2007년 12월 현재.

표 4. 윈드서핑 교육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493	58	86	108	59	33	36	32	38	43
고교생을 위한 윈드서핑체험교실	408	40	80	95	40	30	25	30	34	34
대학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46	8	6	5	5	3	4	2	4	9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윈드서핑 과정	10	10	-	-	-	-	-	-	-	-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자 훈련과정 교원 직무연수	29	-	-	8	14	-	7	-	-	-

자료) 2008년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자체분석 자료, 주) 2007년 12월 현재.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수와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스포츠산업의 육성방안, 제주도 스쿠버다이빙 포인트 개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만족도 및 관광객들의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실태 조사 등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인식전환 및 관계기관의 지원, 그 외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이 필요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 중 핵심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체험관광활성화 방안

1) 인력수요 비전

제주도는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많은 관광 산업과 연계한 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된 연구내용은 국제적 마인드와 경쟁력을 갖춘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객들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해양레저스포츠 여행 상품 개발과 자원개발(코스 개발) 등에 주력하여 제주도가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의 주된 목표는 전공학과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들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해양레저 스포츠경영관리, 해양레저 스포츠이벤트 기획, 교육프로그램 및 해양레저관광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한다.

2) 체험관광활성화 추진 전략

제주도는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스포츠산업을 4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성산포와 중문관광단지에 대규모 해양위락시설과 스포츠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해양관광·레저스포츠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다음의 「해양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자격 연수」, 「해양스포츠산업 자격 연수와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스포츠 산업 및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교육 시스템 구축」의 3가지 추진전략을 갖고 4가지 주요연구 내용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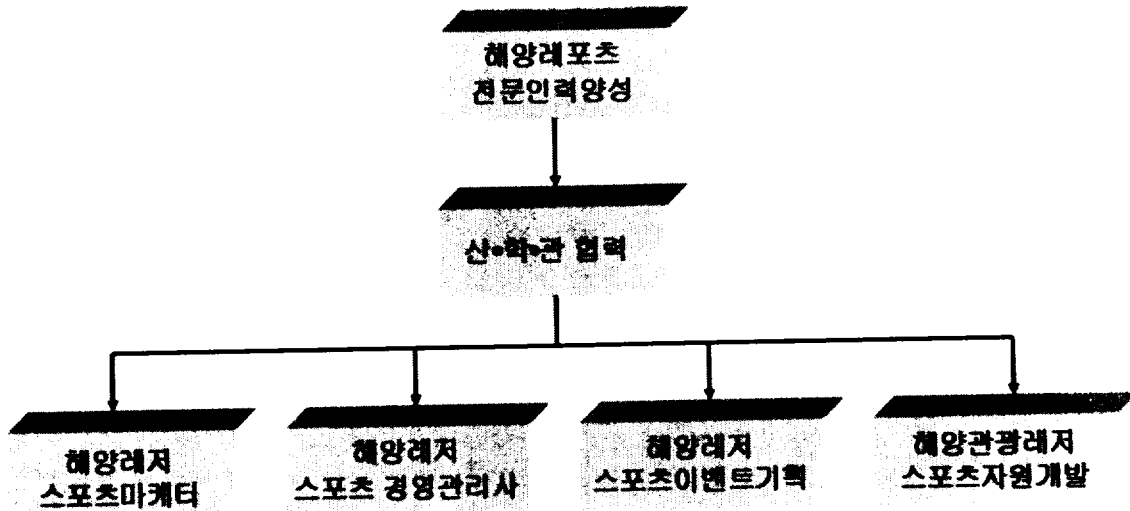


그림 1.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 비전

출해 내어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어 국내외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연구를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1)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자격 연수와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자격연수와 해외연수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질적 성장
-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활성화 기대
- 현재 제주도 성산포에 추진하고 있는 해양산업단지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에 가장 걸림돌로 예상되는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
- 관련 산업체에 학생들의 인턴십제도를 통한 해양산업에 관련된 실무형 인재 육성

(2) 해양레저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추진과 더불어 3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 청정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을

(3)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교육 시스템 구축

- 제주고유브랜드의 현대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전문교육 시스템 구축
-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수동적이고 정적인 관광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관광(참여형체험레저관광형태)으로 변화 도모
-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제주 관광으로의 관심 증대

(4)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방안

해양레저스포츠 자격 취득을 통해 실기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스포츠산업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마인드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실시하며,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어학강좌를 개설하고, 방학기간 중 인턴십을 통한 현장능력의 배양과 해양관광상품 및 자원개발(코스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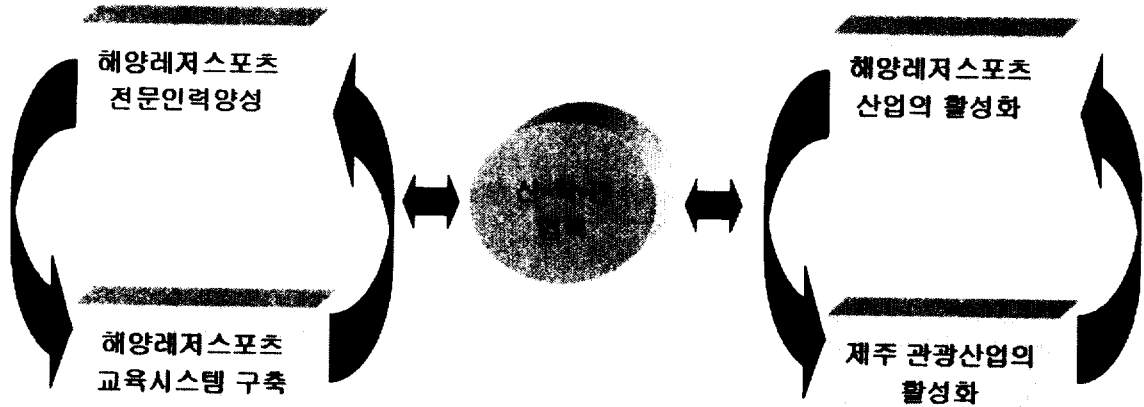


그림 2.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인력 양성과 관광산업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연수에 참여하여 자격증 취득
-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 배양
-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강좌 개설
- 제주자치도 주관 해양레저스포츠 자격 취득을 통한 실기능력 배양
- 방학기간 중 인턴십을 통한 현장능력 배양
- 관광 코스 개발과 상품 개발
- 연구활동을 통한 수요 조사와 자원/코스개발 타당도 조사전문인력을 위한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 가. 해양레저스포츠마케터 양성(제주지방자치도 주관)
- 나. 해양레저스포츠경영관리사 양성(제주지방자치도주관)
- 다. 해양레저스포츠이벤트기획 전문가 양성
- 라. 해양레저스포츠 자원(관광상품) 개발 전문가 양성

III. 국내외 연구현황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여가활동이 생활의 중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가활동 중에서도 레저스포츠는 현대인의 삶의 질

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적 관광추세를 보면 과거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유적 탐방과 같은 정적인 형태의 관광상품으로는 더 이상 다양해지는 관광객의 취향이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적인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많은 나라의 관광상품 중 스포츠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현재 스포츠산업 규모가 3,025억 달러로 자동차 산업의 2배, 영화산업의 7배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9년 현재 스포츠산업 규모가 19조 3,892억엔으로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분류되어 육성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2).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늦지만 스포츠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기에 상승하기 시작한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은 스포츠 관련 가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2001년 11조 7,279억원(문화관광부, 2002)으로 펄프, 종이제품제조업과 봉제의복, 모피제조업보다 우위에 있고 컴퓨터, 사무기기제조업보다는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한편 해양공간은 해변, 해상, 해중, 해저와 같이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고 공간마다 특유의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레저방법 또한 다양하고 각 공간마다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점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김성귀, 1998). 최근 윈드서핑, 요트, 스포츠잠수, 수상오토바이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현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조만태, 2000).

일찍이 서구 유럽에서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각종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개발 전략에 성공을 거둔 바가 있으며, 최근 일본은 관광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객의 욕구와 관련하여 종래의 관광 또는 탐방과 같은 비 활동성 관광정책 보다는 수영, 윈드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카약, 수상스키, 바다낚시 등의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한 활동성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윤이중 등, 1999), Glyptis(1991)는 스포츠와 관광이 분리된 영역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포츠는 관광산업에 있어 오늘날 가장 매력적인 요소라 하였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해양축제 등과 같은 이벤트성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해양레저스포츠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김경렬 등, 1999; 박명국 등, 2002; 박봉률 등, 2001; 박진우, 1998; 윤이중 등, 1999; 지삼엽, 2002).

제주도는 이미 세계정상회의 유치,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름다운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지정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무비자와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점차 개방의 폭 확대 및 관세인하 등을 통해 상품 수출입이 자유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는 비즈니스-물류 교역 기능이 추가된 복합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추진계획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화이트칼라와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 휴양 및 비즈니스의 복합기능을 지닌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김대경, 2002). 또한 Bull 등(1999)은 스포츠관광은 실제로 개별 틈새들의 집합체지만 관광이 대형 스포츠이벤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시에서는 하나의 관광틈새로써 스포츠의 잠재력이 분명히 있음을 제안하였다.

4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해양레저스포츠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하며 특히, 해양레저스포츠의 최적지로 평가되면서 스쿠버다이빙과 윈드서핑은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으며, 체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산업의 경우 3차산업의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3차산업의 구조도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해양-하늘-산(오팀)」을 기본으로 하여 관광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레저 상품개발을 위해 더욱 투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미래의 제주 레포츠관광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주도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투자가 절실한 때이다(류재청, 2001).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배경으로 「제주관광의 만족도 조사」(제주도관광협회, 1996)에서 수동적 관광형태인 시각적인 관광에서 '볼 것 다봤다'고 대답한 결과를 볼 때 '보는 관광'의 상품이 고갈되었거나 매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관광객의 성향별로 각각 '취향에 맞는 것'과 '스스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관광' 형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명환(2002)은 제주도민의 해양레저스포츠 의식과 참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제주도민들이 해양레저스포츠와 연계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80.9%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홍보가 잘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78%가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양질의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매우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는 제주도민들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양레저스포츠의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스포츠 및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 관광 발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비해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상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가 문제제시로만 끝나고 있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 실가지도자 외의 국제대회 및 국제해양EXPO와 같은 복합적인 스포츠관련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전문인력을 양성 개발이 필요하며, 해양레저스포츠의 체험관광형태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 인재라는 문제에 귀착될 수 밖에 없으며, 국내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실태와 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제주 특유의 해양레저 체험 관광상품 브랜드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은 해양에서 행해지는 스포츠지도, 이벤트 기획, 시설 및 관리, 스포츠 미디어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인적 서비스(소프트웨어)와 해양레저스포츠자원개발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문제는 대부분 종사하는 인재의 자질에 의해 그 성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 인재라는 문제에 귀착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지도, 교육프로그램 및 자원개발, 시설의 관리, 운영 및 해양환경의 정비를 위한 제주도의 브랜드를 갖춘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력과 지도자 양성파 배치에 관한 제도적인 양성방안을 모색하고, 이러

한 전문인력 양성과 그 파급효과를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도출해낸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 해양레저스포츠 관광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관광객들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자원개발과 코스개발 등에 주력함으로써 제주도가 해양레저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단순히 제주도의 브랜드를 갖춘 제주도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우수기업 및 관련단체에 채용됨으로써 우수인력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 실업문제에도 충분한 활용이 되리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 김경렬, 오근희 (1999). 스킨스쿠버 활성화 방안.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7, 5-17.
- 김대경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광부문의 발전적 개발전략. 관광경영학연구, 6(3), 23-52.
- 김성규 (1991). 해양관광 상품개발의 방향. 관광학연구, 22(2): 482-488.
- 류재청 (2001). 수중관광 및 학습장을 위한 레저스포츠포인트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연구(제주시 어영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10(1), 261-281.
- 문화관광부 (2002). 2002 체육백서
- 문화관광부 (2003). 스포츠산업 진흥 종합계획.
- 박명국, 김성규 (2002).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7(1), 207-225.
- 박봉률, 강진홍 (2001).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 거제시의 「바다로 세계로」 프로그램 중심.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6(2), 315-332.

- 박진우 (1998). 특별소비세가 윈드서핑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 양명환 (2002). 제주도민의 해양레저스포츠 의식과 참여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7(3), 156-175.
- 양명환, 김기운, 김덕진 (2002). 해양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도용역연구보고서.
- 윤이중, 배성완, 윤기운 (1999). 전남지역 관광개발과 연계한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1, 207-226.
- 제주도관광협회 (1996). 관광객 만족도 조사. 제일원색인쇄사.
- 제주발전연구원 (2003). 스포츠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2002년 기준). 삼화상사인쇄소
- 조만태 (2000). 해양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4, 411-418.
- 지삼엽 (2002). 대규모 국제행사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1(4), 83-97.
- Bull, C., and Weed, M. (1999). Niche markets and small island tourism: The development of sports tourism in malta. *Managing Leisure*, 4(3), 142-155.
- Glyptis, S. A. (1991). Sport and tourism. In C. Cooper(Ed),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3: 165-183. London : Belhaven Press.n
- Sports and Exercise*, 22(3), 357-369.

접 수 일 : 2008. 01. 30.

게재확정일 : 2009. 02. 10.

